

광주광역시, '더 크고 더 강한 문화중심도시' 8대 핵심정책 발표

2022 세계양궁월드컵대회개최, 2038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등

광주시는 올해 더 크고 더 강한 문화중심도시를 만드는 2022년 8대 핵심 문화정책을 발표했다.

시는 2022년 예술인 복지 지원 및 권리보장(3개 분야 13대 혁신과제), 미디어아트 365 풀럼 광주만들기 추진, 문화중심도시 광주 특화 환경 조성, 광주다움이 묻어나는 문화 공간 마련,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 광주에서만 볼 수 있는 관광 명소 조성, 즐거움이 넘치는 관광콘텐츠 개발, 운영, 스포츠 국제도시 광주 위상 강화 등 8대 핵심 문화정책 전략 기조를 유지하면서 광주다움이 묻어나는 '뽕적있는 문화 일류도시 광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정책인 예술인 복지 지원 및 권리보장을 위해 문화예술 보조사업 공모시기 앞당기기를 추진한다. 통상적으로 그해 2월에 공모사업 공고를 시작하였으나, "공모시기가 늦어 행사를 위한 대관, 스태프 확보에 어려움이 많"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공모사업은 2021년 12월에 공고

를 시작하였다.

두 번째 정책인 미디어아트 365 풀럼 광주만들기 추진을 위해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을 올해 3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국내 최고의 미디어파사드 제공, 미디어아트 창작자 전시, 교육, 체험 등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다위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세 번째 정책인 문화중심도시 광주 특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특화형 전통 생활음악당을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건립할 것이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문화자원을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여 국립현대미술관 ACC 메타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네 번째 정책인 광주다움이 묻어나는 문화 공간 마련을 위해 동명동을 ACC와 연계한 문화관광 축으로 육성하고자 사업비 170억원을 들여 대표 문화마로 조성 중이며, 폐쇄된 상무소각장 부지를

활용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국제 비엔날레 위상에 걸맞는 전시환경을 조성코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추진 등 광주만의 고유함과 정체성을 담은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 번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이다.

여섯 번째 광주에서만 볼 수 있는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19억원으로 문화전당-월봉서원 연계 선비문화 체험복합관 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곱 번째 즐거움이 넘치는 관광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온라인 관광상품 운영, 찾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광주 만들기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찾고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멋과 맛이 있는 관광도시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국제도시 광주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2022 세계양궁월드컵대회 개최, 2025 세



계양공선수권대회 개최 준비, 2038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추진하며, 스포츠 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2,073억원의 사업비로 총 17개 체육시설을 구축, 모든 시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선진 체육도시로 육성할 것이다. 하인숙 기자

광주 동구, 근대가옥 '인문학당' 리모델링

동명동 근대가옥 리모델링...인문관·공유부엌 등 조성

광주 동구는 동명동 근대가옥을 리모델링 해 주민의 인문학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구 인문학당'을 조성,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관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임팩트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인문학당을 설계한 최귀동 건축사의 안내에 따라 시설 투어를 진행했다.

그동안 동구는 민선 7기 들어 '인문도시'를 지향하며 인문대학 운영, 책 읽는 동구, 인문동아리 지원 사업 등 주민의 인문 감수성 계고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왔다.

이번에 개관한 동구 인문학당은 '인문도시'를 지향하는 동구만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공간으로 인문 관련 창작과 교류활동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마을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품고 있던 철거 위기의 건축자산을 보존해 주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인문도시 동구를 대표하는 공간인 이곳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인문학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경열 기자



광주 남구, '군 공항 소음 피해보상' 추진

석정동·화장동 등 일부 지역 149세대

광주 남구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전투기 운용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군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보상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소음 대책

역으로 지정·고시된 군 공항 주변의 석정동과 화장동 등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149세대가 피해 보상을 받는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방부 설명회와 주민대표 및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12월말에 국방부에서 해당 지역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하인숙 기자

광주 서구, 코로나 극복 도시녹화사업

광주 서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무력감과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녹색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이를 위해 올해에만 총 37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생활정원 ▲미세먼지 차단 숲 ▲자녀안심 그린 ▲녹지 한평 늘리기 ▲미래 숲(학교 숲) 조성 ▲그린로드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블루 치유를 위해 서구보건소 및 구청 청사와 같은 공공시설에 이색적이고 다채로운 실내·외 정원을 만들어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코로나로 지친 심신 회복의 장을 제공하고 정원문화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제2순환로와 서광주역 철로 인근, 제2순환로 경계부 등에 도심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숲과 운전초교 인근 보행로에 자녀안심 그린 숲을 조성하



여 미세먼지와 폭염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도시 서구'를 구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충하게 된다. 하인숙 기자

무등에서 영산까지 한 번에 걷다

광주 북구, '시민의 숲음길' 조성사업 추진

북구는 무등산에서 영산강까지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시민의 숲음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구는 올해부터 단기, 중기, 장기 계획에 맞춰 무등산 지락인 군왕봉에서부터 삼각산, 일곡동 한새봉, 매곡산, 운암산 등을 거쳐 영산강까지 이어지는 친환경 산책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단기계획으로 오는 2023년까지 삼각산 정상에서 일곡동 한새봉을 거쳐 일동중학교까지 약 5.5km 구간에 도심 속 트레킹이 가능한 등산길을 조성한다. 또 한새봉과 삼각산 사이의 도로로 단절된 구

간은 구릉다리로 연결하고 두 곳에 야생동물 이동 통로와 산책로를 만들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지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

중기적으로는 오는 2024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자와 협의 후 110억 원을 들여 일곡동 한새봉에서 매곡산, 운암산을 거쳐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총 3개의 보행교육로를 건설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국도와 호남고속도로로 단절됐던 생태축 복원을 위한 시민의 숲음길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경열 기자

광산구, 전국 최초 참여소득 일자리 '광산시민수당 제도화'

광주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참여소득 일자리' 광산시민수당의 제도화에 본격 나섰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 광산구 광산 시민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올해는 광산 시민수당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 사업 범위와 참여자 선발 기준 등을 정할 계획이다.

광산시민수당은 무조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기

본소득과 달리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참여소득'이다. 저소득층이 주로 참여하는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기존 일자리 사업과는 차별화된 시민참여 중심의 새로운 지역일자리 모델이다.

광산구는 코로나19로 일자리 위기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해법으로 광산시민수당을 시도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마스크 제작, 돌봄, 기류위키 대응, 마을활동 등 총 31개 사업에서 1045명의 활동을 광산시민수당으로 지원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인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다"며 "일지리의 개념을 고용에서 참여로까지 확장한 전국적인 모델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인숙 기자

원장 박태호

라벨르의원

Plastic Surgery & Dermatology

성형외과 피부과

가슴성형/눈성형/코성형/지방이식/지방흡입/안면거상
주름개선/보톡스/미백/제모/탄력/피부관리/다이어트

- 문의: 062)714-1275
-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8 (전대병원 응급실 옆)

오시는길

전남대학교 병원 | La belle | 조선대학교 병원
1 남광주역 | 남광주교차로
남광주시장 | 무등산 아이파크 아파트